

Research on Result Report and Improvement
Plans of Goyang International City Forum

고양 도시 포럼 결과 및 개선방안

임지열
소가람

Research on Result Report and Improvement Plans of Goyang
International City Forum
고양 도시 포럼 결과 및 개선 방안

연구책임자

임지열(고양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소가람(고양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9년 12월 16일

저자 임지열, 소가람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54-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본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목적	1
제1절 보고서 작성 배경	3
제1절 보고서 작성 목적	4
제2장 2019 고양 도시포럼 구성 및 내용	7
제1절 고양 도시포럼 구성	9
제2절 고양 도시포럼 논의 내용	23
제3장 고양 도시포럼 개선 방향	31
제1절 타 지자체 및 기관 사례	33
제2절 고양 도시포럼 개선 방안	40
제4장 결론	45
참고문헌	49
Abstract	51

표 목차

[표 2-1] 고양 도시포럼 준비 정기회의 일정	10
[표 2-2] 고양 도시포럼 - 로컬포럼 일정	14
[표 2-3] 로컬포럼 시 논의된 고양시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25
[표 2-4] 로컬포럼 시 논의된 각 분야별 주요 내용	26
[표 2-5] 로컬포럼 및 정책포럼 시 국외의 전문가별 주요 논의사항	28

그림 목차

[그림 1-1] 2019년 고양 도시포럼 자료집	4
[그림 1-2] 2019년 고양 도시포럼 개최	5
[그림 2-1] 2019년 고양 도시포럼 추진단	10
[그림 2-2] 2019년 고양 도시포럼 준비회의	11
[그림 2-3] 장항습지 세부 탐방 일정	15
[그림 2-4] 장항습지 탐방 사진	16
[그림 2-5] 일산역 일대 세부 탐방 일정	17
[그림 2-6] 일산역 일대 탐방 사진	18
[그림 2-7] 일산동구청 일대 세부 탐방 일정	19
[그림 2-8] 일산동구청 일대 탐방 사진	20
[그림 2-9] 로컬포럼 사진	22
[그림 2-10] 로컬포럼 참석요청공문	24
[그림 2-11] 로컬포럼 의견취합서	24
[그림 3-1] 2019년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례	34
[그림 3-2] 아시아 인권도시 수원포럼 사례	36
[그림 3-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포럼 사례	38

요 약

1. 본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목적

□작성 배경

- 2019년 처음으로 개최된 고양 도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
- 지속적인 행사로서의 고양 도시포럼의 운영 및 차기 포럼의 참고를 위함

□작성 목적

- 포럼 운영의 개선 방안 탐색
- 고양 도시포럼의 지속가능성 담보방안 확보를 위함

2. 2019 고양 도시포럼 구성 및 내용

○고양 도시포럼 구성

- 추진단의 구성, 회의 등의 준비과정 기록

○로컬포럼 논의 내용

- 로컬 포럼의 운영과 구성 소개
- 장항습지 랍사르 사이트 등록
- 구신도심의 환경개선 방향

3. 고양 도시포럼 개선 방향

○ 타 지자체 및 기관 사례

- 광주광역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수원시 인간도시 수원포럼,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 사례 제시
- 제시된 포럼 등의 성공요인 등을 분석

○ 고양 도시포럼 개선 방안

- 방향성의 정립, 조직의 구성 및 개편, 시민참여방안 제고, 운영방안 개선 등 4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 제시
- 포럼의 주제 및 방향성 정립: 고양시의 고유한 특성을 담으면서 시정의 비전이나 방향성을 담아낼 수 있는 주제와 소재의 발굴
- 조직구성방안: 포럼 개최를 위한 총괄부서 설립 및 업무를 위한 인원의 배정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시민 생활에 밀착된 주제의 발굴, 지역외제의 정책화 가능성 확대
- 운영방안: 예산의 편성 시간 배정의 개선 등

4. 결론

○ 핵심 내용의 정리

제 1 장

본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목적

제1절 보고서 작성 배경

제2절 보고서 작성 목적

제절 보고서 작성 배경

- 2019년 10월 22일 ~ 23일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 도시재생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고양도시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본 포럼의 개최 목적은 105만 인구의 대도시인 고양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고양시의 경우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및 법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고양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고양시의 현황,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음.
- 고양 도시 포럼의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음. 1일차(10월 22일)는 로컬포럼으로 고양시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실무진들이 고양시의 특정 지역을 방문하였음. 이후 지역 내 실무진들과 고양시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방문지역에서 소규모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2일차(10월 23일)는 정책포럼으로 1일차 로컬포럼에서의 현장 방문 시 파악한 점 및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음.
- 고양 도시 포럼에서는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 수립, 구도심 지역의 재생 방안,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장항 습지의 보존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실무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임.
- 특히, 고양 도시포럼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연도별 지속적인 행사로 계획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시재생, 환경(기후변화 및 습지 보존)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 또한 고양시에서는 고양 도시 포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수록한 '고양 도시포럼 백서(가칭)'발간을 계획하고 있음.

제2절 보고서 작성목적

- 본 보고서는 고양 도시포럼 중 고양시정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1일차 로컬포럼 (환경분과) 을 대상으로 준비와 진행 및 로컬 포럼 개최에 따른 성과를 정리하고자 함. 또한 2020년 고양도시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포럼 운영 개선 방안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1-1] 2019년 고양 도시포럼 자료집



[그림 1-2] 2019년 고양 도시포럼 개최

출처 1: 고양도시관리공사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aB1aS5gkklU_J47Fm2VG2Q) 접속일 2019.11.12.

출처 2: “고양시, 도시재생과 환경을 주제로 ‘2019 고양도스포럼’ 성황리 개최”, 시사팩트(2019.10.23.) 접속일 2019.11.12.

제 2 장

2019 고양 도시포럼 구성 및 내용

제1절 고양 도시포럼 구성

제2절 고양 도시포럼 논의 내용

제절 고양 도시포럼 구성

1. 고양도시포럼 추진단 구성 및 준비

- 본 고양도시포럼은 고양시 제1부시장을 도시포럼 추진 단장으로, 도시균형개발국장을 도시포럼 추진 부단장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 2-1]과 같이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분과는 도시 포럼 세부 주제에 맞춰져 있으며, 각각 도시재생분과, 환경분과 그리고 포럼운영분과로 이루어져 있음. 도시재생분과는 고양시 도시재생과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담당하였음. 환경분과는 고양시 기후대기과, 환경정책과 그리고 고양시정연구원이 담당하였음. 특히, 고양시정연구원은 1일차 로컬포럼 전담 및 환경 분과 전반에 걸친 포럼 운영 방안 및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함. 마지막, 포럼운영분과는 기획담당관, 전략산업과, 언론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 및 회계과로 포럼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담당함. 아래의 [표 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양도시포럼 추진단은 2019년 4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회의 22회와 개별 분과 회의 약 10회 등 30회 이상의 회의가 고양도시포럼 준비를 위해 이루어졌음.

[그림 2-1] 2019년 고양 도시포럼 추진단



[표 2-1] 고양 도시포럼 준비 정기회의 일정

구 분	추진 내용	개최일시
1차	• 행사 추진 방향, 기본계획 논의	19.04.10
	• 포럼 추진단 조직, 분과별 세부사업 수립	19.04.11
2차	• 해외연사 섭외, 진행 프로그램 협의 등	19.04.16
3차	• 국내외 연사 섭외, 초청 관련자료 작성 협의	19.04.26
	• 분과별 포럼 자문단 자문회의 실시	19.05.03~07
4차	• 행사 제목변경, 초청 관련자료 보완 등	19.05.08
5차	• 행사명 최종 선정, 프로그램 및 예산 확정	19.05.17

구 분	추진 내용	개최일시
6차	• 세부계획(안) 수립, 분과별 역할 보완 등	19.05.28
7차	• 2019 고양도시포럼 세부추진 계획 수립	19.06.04
8차	• 전체 추진단 회의	19.07.08
9차	• 행사운영대행사 선정, 착수보고회	19.08.14
10차	• 분과별 운영계획 보고 및 정책포럼 운영계획안 협의	19.09.18
11차	• 추진단 세부실행계획 보고 및 의견 수렴	19.09.24
12차	• 행사홍보 및 VIP리스트 논의	19.10.01
13차	• 로컬포럼, 정책포럼 장소 점검	19.10.10
14차	• 행사 세부운영점검 및 아젠다 회의	19.10.11
15차	• 최종 운영계획안 점검 및 주요 참석자 리스트 확정	19.10.14
16차	• 외부수행직원 행사설명 및 연사수행안내 오리엔테이션	19.10.15
17차	• 운영계획 보안논의 및 점검	19.10.16
18차	• 기초연설문 사전검토 및 세션운영 최종검토	19.10.17
19차	• 최종 현장 점검 및 VIP동선 확인	19.10.18
20차	• 기초연설문 및 PT 최종 확인	19.10.20

[그림 2-2] 2019년 고양 도시포럼 준비회의



4. 로컬 포럼 운영

- 로컬 포럼의 주요 답사지로는 장항습지, 일산역 일대 그리고 호수공원 및 일산동구청 일대로 선정함. 먼저, 장항습지는 고양시 및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한 거점임. 특히 습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탄소 저장고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환경적 가치 외에도 철새 및 멸종 위기인 (천연기념물) 수생물에 대한 서식 공간 제공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습지를 통해 홍수 및 가뭄 발생저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함. 그리고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함. 무엇보다 장항습지의 경우 고양시 및 한강 하구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음. 이와 같은 생태·환경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고양시에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고양시 내 위치한 장항습지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로컬포럼 지역으로 선정함.
- 일산역 일대와 일산동구청 일대는 고양시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임. 일산역 일대의 경우 전형적인 개발 이전 고양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노후화된 건물 및 사회 기반시스템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현 시점에서 친환경적 개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임.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친환경적인 교통 부분에서 고양시의 정책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지역임. 또한 일산동구청 일대는 일산역 일대와 비교하여 최근에 개발된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과 비교하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기후변화 대응 부분 등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상황이지만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구도심의 개발 방향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 및 신도심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로컬 포럼 지역으로 선정함.
- 고양 도시포럼 1일차 (10월 22일) 로컬포럼 (환경분과) 의 일정은 아래 [표 2-2]와 같음. 오전은 장항습지 방문으로 장항습지탐방지원센터에서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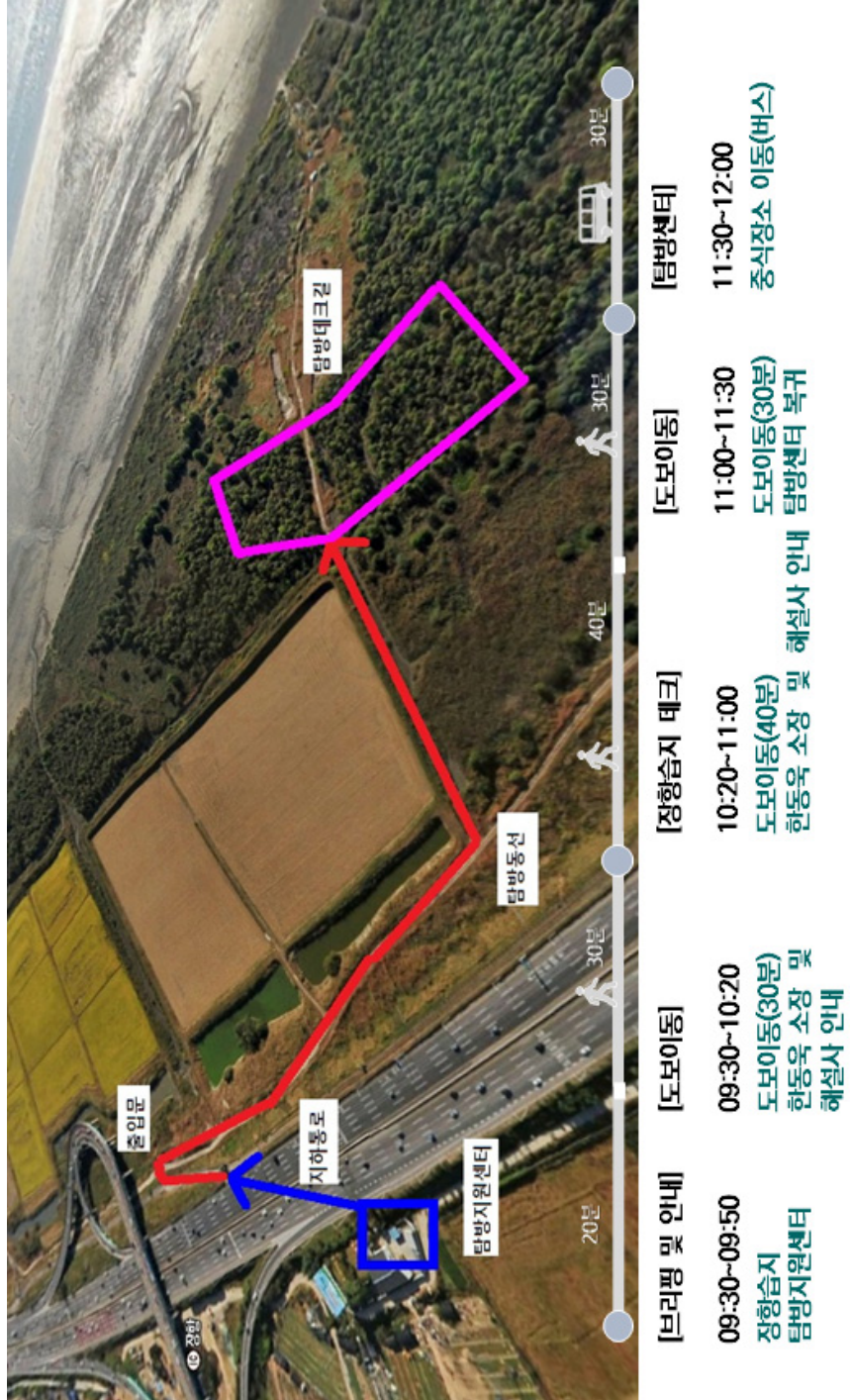
승렬 과정의 장항습지 소개 및 현황 설명 이후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항습지 탐방이 이루어졌음. 장항습지 탐방은 장항습지 내 동·식물들의 생태학적 특징, 장항습지 구조, 현재 장항습지가 직면한 문제 및 향후 보전 방안 등에 본격적인 설명이 이루어짐.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장항습지의 랍사르 습지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음. 오후에는 고양시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일산역과 일산동구청 일대에 대한 탐방이 이루어짐. 일산역과 일산동구청 일대 탐방은 고양시청 기후대기과와 고양시정연구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 해당 탐방에서는 고양시 구도심과 신도심의 발전 방향과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교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질의가 이루어짐. 특히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고양시 도시 현황을 직접적으로 소개 및 체험하였다는 것이 그 성과라 할 수 있음.

- 장항습지, 일산역 및 일산동구청 일대를 탐방한 후 일산동구청 소회의실에서 로컬투어를 바탕으로 로컬포럼이 이루어짐. 로컬포럼은 고양시정연구원 이현정 부원장이 좌장을, 그리고 고양시정연구원 임지열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음. 또한 로컬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로컬포럼 세부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석한 전문가들은 습지 생태, 친환경 교통, 건축물 에너지 및 친환경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로컬포럼 이전에 이루어진 고양시 현장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고양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표 2-2] 고양 도시포럼 - 로컬포럼 일정

구분	시간	내 용	비 고
브리핑	09:30~09:50 (20분)	고양시 습지로 환경을 말하다-장항습지 현장투어 브리핑 및 안내 Field Trip: Ecosystem and sustainability of Janghang Wetland	-
		◦장항습지탐방지원센터	
답사1	09:50~11:00 (80분)	Site1. 장항습지 ◦장항습지 내 생태 탐방	-
식사	11:30~13:00 (30분)	◦ 중식 및 휴식	-
이동	13:00~13:15 (15분)	◦중식장소 → 일산역 일대	-
답사2	13:15~15:05 (120분)	고양시 기후환경을 말하다-고양시의 구도심 및 신도심 현장투어 브리핑 및 안내 Field Trip: Urban Sustainability of Goyang	--
		Site2. 일산역 일대 ◦경의선 일산역 일대 (BRT, 피프틴 연계시스템 등) ◦인근주거지 및 녹지환경 등 Site3. 일산동구청 일대 ◦3호선 정발산역 일대 (메트로, BRT, 피프틴 연계시스템 등) ◦호수공원 등 인근 녹지환경	
로컬 포럼	15:05~17:30 (145분)	고양시의 환경정책을 고민하는 따뜻한 수다방 Talk Concert: Thinking about Environmental Strategy of Goyang	-
		◦ 고양시 구도심이 나아가야 할 방향 ◦ 고양시 신도심의 개선방향 ◦ 고양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방향	

1) 정향습지 답사



[그림 2-3] 정향습지 세부 탐방 일정



[그림 2-4] 정형솔지 탐방 사진

2) 일산역 일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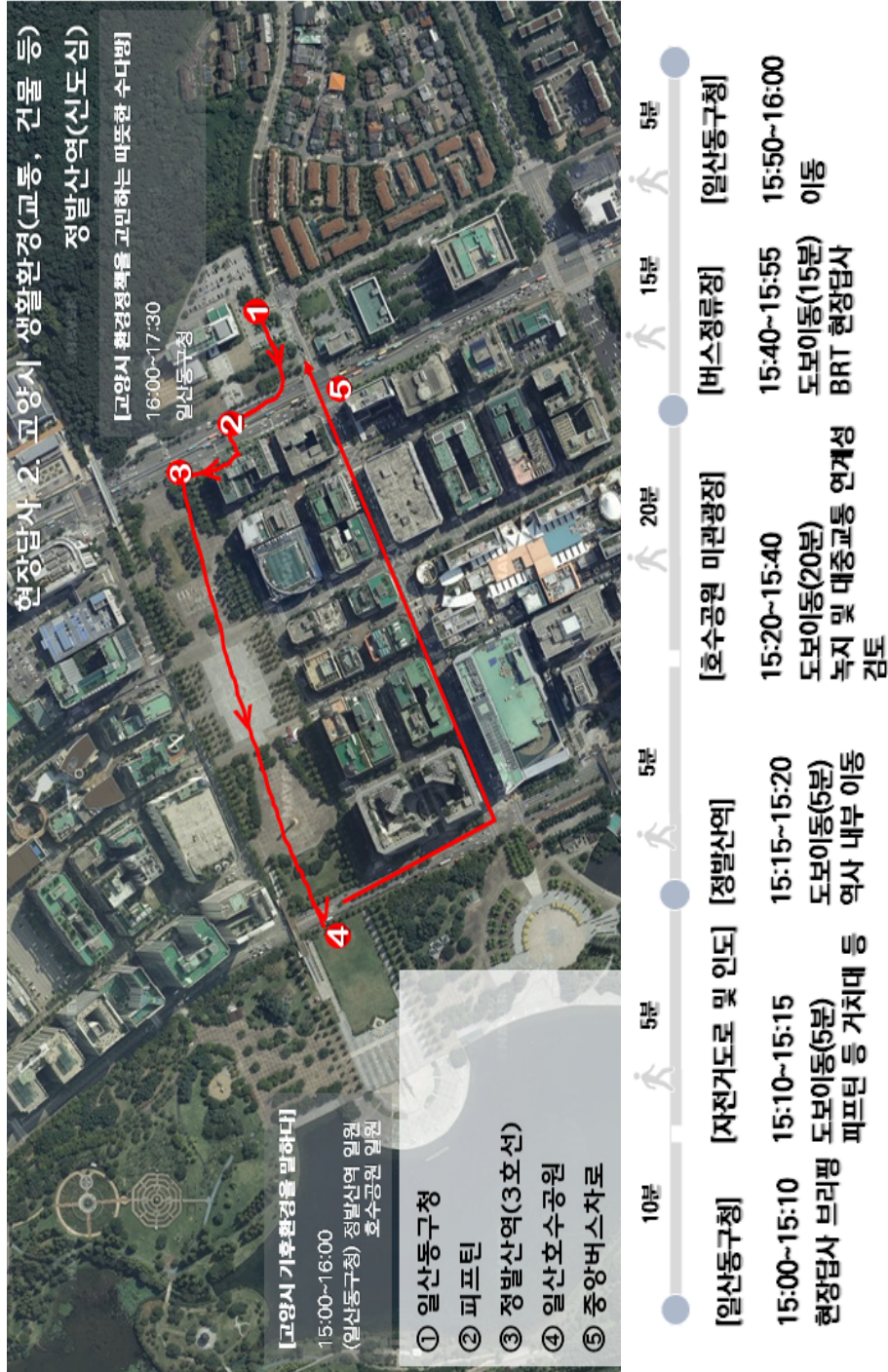


[그림 2-5] 일산역 일대 세부 탐방 일정



[그림 2-6] 일산역 일대 탐방 사진

3) 일산동구청 일대



[그림 2-기 일산동구청 일대 세부 탐방 일정]



[그림 2-8] 일산동구청 일대 탐방 사진

4) 로컬포럼

주제: 저탄소 저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고양시

1. 좌장: 고양시정연구원 이현정 부원장
2. 사회: 고양시정연구원 임지열 부연구위원
3. 참석자 (전문가)
 - Konrad Otto-Zimmermann (The Urban Idea)
 - Gajanana Hegde (UNFCCC)
 - Franke Wolke (UNFCCC EB)
 - Nick Davidson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인용 (한국환경공단)
 - 한동욱 (PGA 에코다양성연구소)
 -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4. 주요 참석자 (고양시)
 -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5. 주요 논의 사항
 - 장항습지 랍사르 사이트 등록 및 관리 방안
 - 고양시 구도심의 개선 방향
 - 고양시 신도심의 개선 방향



[그림 2-9] 로컬포럼 사진

제2절 고양 도시포럼 논의 내용


1. 로컬 포럼 논의 내용

- 로컬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현장 탐사를 통해 제안하는 고양시의 발전 방향과 더불어 현재 고양시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현재 고양시가 직면한 문제점 도출을 위해 관련 부서(도시계획, 버스운영, 자전거문화, 주택정책, 조경, 호수공원, 생태하천 및 시설관리 팀)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여 고양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음. 또한 종합적으로 고양시의 친환경적 도시 구성을 위한 역할 및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음. 아래 [그림 2-10] 및 [그림 2-11]은 고양시 실무부서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표 2-3]은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고양시 실무부서의 문제점을 정리한 내용임.

2019 고양도시포럼 의견취합서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예로사항	고양시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가지내 교통축전 감소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녹역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최초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자전거인 피프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 5월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기간 만료로 인한 피프틴 사업이 종료됩니다. 피프틴은 시행초기에는 많은 시민들의 이용과 사랑을 받았으나 피프틴사업의 부정되는 적자로 인하여 시설 개선과 자전거의 교체기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주요민원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은 2010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을 시작한 후 계속되는 누적적자로 인하여 재투자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프틴스테이션(자전거대차)노후화로 인한 반납유류, 강제이탈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처음 3,000대로 시작된 피프틴자전거 또한 폐기와, 일부 도난등으로 현재 약 1700대정도의 자전거만 운영중으로 피프틴 이용률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제안사항	고양시에서는 2020년 5월말 피프틴사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공공자전거 정책용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자전거 시장의 상황은 교통정책 및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소유" - "공유"의 전환과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의 시장으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고양시에서도 기존의 피프틴 자전거외에도 전기자전거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음.
Q&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는 현재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공공자전거 정책과 공공자전거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 현재 자전거 시장은 교통정책 및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되고 있는데 외국의 공유자전거 시장 현황과 운영상황은 ?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 자전거도로에는 일반자전거와 25km이내의 전기자전거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운행 현황은 ?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상 자전거운행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외국의 헬멧 착용에 대한 관리규정과 운영 현황은 ?

[그림 2-11] 로컬포럼 의견취합서



로컬포럼 시민 대화로 통하는 포럼

고 양 시

수신 내부결재 (강유)

제목 2019 고양도시포럼 개최에 따른 의견취합서 작성 요청

1. 환경과 도시가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도시재생과 환경'을 주제로 「2019 고양도시포럼」이 10. 22(화) ~ 23(수) 개최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10. 22(화) 신도시 및 구도심 지역에서 해외 관련 전문가와 함께 녹지, 교통 등 환경문제를 주제로 10. 22(화)환경 로컬포럼이 개최됨에 따라 사전에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취합서 작성을 10. 16 (수)까지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분과 로컬포럼 개최 계획 1부,
 2. 2019 고양도시포럼 시장님 보고자료(환경분과) 1부,
 3. 2019 고양도시포럼 의견취합서 1부, 끝.

전송처분	박승원	기획조정실	김태웅	기후환경과	김민정	2019. 10. 11.
도/과/팀/담당	도시계획팀	서운경	도시계획팀	이혁진	도시계획팀	이현수
과장/팀장	김영환	서연정	도시계획팀	김보현	도시계획팀	김민수
시합	기후환경과(10-0088)	합산	도시계획팀	김보현	도시계획팀	김민수

주 1048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구강사거리 15-2, 로컬포럼 4층 (주 / TEL: 070-8900-0047
 전화번호 0711 | 팩스번호 031-9076-4844 / 031-9076-0047 / 031-9076-0047 / 031-9076-0047
 개인정보보호법 제 36조 제 4항 제 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림 2-10] 로컬포럼 참석요청공문

[표 2-3] 로컬포럼 시 논의된 고양시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시정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준 혹은 수준 정립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예산 소요, 비효율적인 버스노선 등 • 교통, 녹지 확보, 생태하천 등 관련 분야의 선진사례 공유
생태적 기능 증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심의 녹지공간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확대 방안 (공공건물 적용은 효과가 미미) • 하천의 치수와 생태적 기능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 하천 건천화 및 수질악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용수 확보 외 친환경적인 대응방안 -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LID 기법과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방안
교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또는 공공자전거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자문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 효과적인 BRT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 지선버스 및 마을버스의 난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함
주체 역할 및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지자체, 학계 및 민간 (NGO)의 역할 및 협업 방안 • 장항 습지 보전 및 람사르 등록을 위한 지자체, 학계 및 민간 (NGO)의 역할 및 협업 방안


[표 2-4] 로컬포럼 시 논의된 각 분야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장항습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람사르 습지 등록 및 물새방문지 관련 국제협력 등 통해 시민환경인식 제고 및 습지의 중요성 홍보기회 확보가능 •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장항습지의 학술적 중요성 홍보 및 추후연구 필요
환경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네트워크(녹지축) 및 블루네트워크(하천 및 습지) 간 연계 - 고양시의 생태적 연결성 및 시민 생활공간의 질적 향상
구도심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도심 재개발 시 기존 네트워크를 파괴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교통정체, 주차 등의 문제발생시 구도심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건설보다 차량 접근 방지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운영한 공공자전거의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시기 - 공공자전거 회수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필요 •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역 등 접근성 높이고 민간분야의 경제적 지원 확보 • 자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 배제 가능한 환경 조성 → 시민인식 제고의 첫 걸음 - 자가용 수송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교통수단별 우선순위 적용해 정책 수립 및 사업수행

구분	주요내용
	<p>→ 소규모 및 점진적 적용으로 사업부담 줄이되 인구가 유입되기 전 속히 시행</p>
<p>건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 적용 확대 - 녹지율 확보 및 친환경적 건축기법 적용확대 - 지속가능한 재료 활용한 녹색건축 추구 필요
<p>폐기물 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자원화 통한 자족도시 지향 - 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하수처리 시 민간 참여 독려 통한 자금유입 및 시민인식제고 • 쓰레기 소각 외에도 재활용 통한 자원회수율 높이는 방안 고려 • 시민친화형 쓰레기 처리정책 도입 - 시민의 디지털 플랫폼 니즈 충족 및 UI 단순화 등
<p>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각 분야별 에너지 소모량 파악 후 에너지전환 우선순위 등 결정

- 본 고양도시포럼 (로컬포럼 및 정책포럼)을 통해 국외 전문가 별 (Konrad Otto-Zimmermann, Massamba Thioye, Franke Wolke와 Nick Davidson)의 주요 제안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5] 로컬포럼 및 정책포럼 시 국외 전문가별 주요 논의사항

국외 전문가	주요 내용
 <p>Konrad Otto-Zimmerman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시스템 구축 필요 • 생태교통의 개념 도입 필요 • 생태교통은 경제적(economical)·생태학적(ecological) 의미 내포 →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지칭 • 교통·에너지 통합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행동 적용 필요 • 화석연료의 상당량을 교통이 소모 → 교통과 에너지 전략 연계 필요 • 신재생에너지 전환, 단기저장(전기차) 및 장기저장(수소차) 고려 • 이동수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통한 교통정책 수립 • 친환경적인 이동수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 회피(Avoid)-전환(Shift)-개선(Improve) 접근방식 도입 •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성 계획 도입(SUMP 8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시 전체에 지속가능한 이동성 계획 수립 ② 장기적이고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 ③ 통합된 교통체계 개발 ④ 국제적 협력 증진 ⑤ 시민과 이해당사자 참여 독려 ⑥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에 시민과 이해당사자 참여 ⑦ 교통시스템 성과 평가(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 수립) ⑧ 품질 보증 • 생태이동(eco-mobility) 국외 우수 사례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국외 전문가	주요 내용
 <p>Massamba Thio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협력과 더불어 민간의 참여 독려 및 자본 유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2050 LE DS) 수립이 필요 • NDC 이행가능성 높이기 위해 지역과 산업 연계 전략 필요 • 적절한 기후행동 제시 : 전력망 저탄소화(스마트도시 등), 건물에너지 효율 최적화, 보행자 우선 도시환경 구축, 폐기물 자족관리 • 기술 푸시 정책과 기술 풀 정책 병행 필요 • 청정기술 사용자와 기술 개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병행 • 지역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녹색채권 발행) • 외부효과 내재화, 저비용 기후기술, 지역금융 접근성 확대 • 기후기여도 평가 적용 •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정립 필요
 <p>Franke Wolk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CDM 사업의 특징, 적용분야 및 향후 시장 변경 사항 파악 통한 사업추진 •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 하 감축이행제도로 상쇄 메커니즘임 • 온실가스 감축활동 중 실질적 자금투입 사업 • 도시 주요 탄소배출분야: 교통, 건물, 에너지, 폐기물 및 폐수 • CDM의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으로 인한 민간 분야 참여 독려 어려움 - 도시에서 CDM 추진 시 투입비용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이 적음 - 불투명한 CDM의 미래(교토의정서 종료)
 <p>Nick Davids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습지의 높은 생태적 가치 및 람사르 협약 등 국제환경 협약을 통한 습지 보전 • 람사르 협약이 가지는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습지 보전을 위한 최초의 현대적 정부간 국제 환경협약 - 습지의 현명한 이용(지속가능성),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지정 및 관리, 국제협력 포함 • 습지의 생태계 서비스 및 경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생산, 어업, 양식장, 기후조절, 탄소저장고, 자정작용, 침수피해 조절, 생

국외 전문가	주요 내용
	<p>물다양성 유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습지 최소 연간 47조 달러, 내륙습지 연간 27조 달러, 연안습지 연간 20조 달러 • 습지 보전의 필요성 - 홍수 및 가뭄 발생 저지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역할 담당 - 육상의 중요한 탄소저장고「블루카본」(삼림탄소의 2배 저장)

제 3 장

고양 도시포럼의 개선 방향

제1절 타 지자체 및 기관 사례

제2절 고양 도시포럼 개선 방안

제절 타 지자체 및 기관 사례

1.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광역시)

- 세계도시인권포럼은 광주광역시 및 3개 기관이 주최하여 열리는 국제 포럼으로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9회차 포럼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지방정부와 인권 - 인권도시를 다시 상상하다” 라는 주제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음.
-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인권” 이라는 가치를 핵심으로 하여 거버넌스, 관련 정책의 공유, 아이디어 발굴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과 장치의 재설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는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권리에 대해 뜨거운 외침이 많았던 광주의 역사적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광주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가치로 시민들 및 관련 단체들의 지지도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운영 면에서도 단순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형식의 포럼을 비롯하여 인권탐방, 도시권 의제 관련 교육프로그램, 인권컬러링체험,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관련 학술단체나 연구단체 등을 넘어 일반 시민으로까지 수요층을 확장시킴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1] 2019년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사례

🌸 인권 역사

광주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앞장서 불의에 맞서는 충절과 의기의 고장이다. 근대화 역명기의 동학농민혁명(1894), 제국주의 일본 강점기의 광주학생독립운동(1929),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정치군부 세력의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맞선 5·18민주화운동(1980),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반독재 민주화 시민 6월 민주항쟁(1987)까지 역사적 고비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도시이다.



동학농민운동(1894)

광주학생독립운동(1929)

5·18민주화운동(1980)

6월 민주항쟁(1987)



출처: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 (<http://www.whrcf.org/>) 접속일 2019.12.23.

2. 인간도시 수원포럼(수원시)

-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2019년에 3회차를 맞이한 포럼으로 수원시가 주최하여 매년 열리는 포럼이다. 이는 수원시가 추구하는 ‘인간도시’라는 가치를 반영하여 “사람 중심 도시 만들기”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에서의 인간적 가치 추구를 위한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인간도시 수원포럼은 “인간도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수원 시정의 방향성을 맞추는 것으로 현 시대 도시계획의 트렌드인 ‘사람 중심 도시 만들기’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이렇게 도시 계획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반영함으로써 도시 계획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사람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포럼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2019년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를 인간의 권리로서 다루는 것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 내에 만연한 문제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음. 이렇게 핵심 주제와 현 사회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함과 동시에 포럼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한 것은 포럼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앞으로의 포럼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이렇게 주제 선정의 탁월성을 보였음에도, 보통의 시민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부재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음.

[그림 3-2] 아시아 인권도시 수원포럼 사례



출처: 인권도시 수원포럼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 접속일 2019.12.23.

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포럼

- 한국도시행정학회는 매 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하는데 특정 도시와의 협업으로 해당 도시정부가 지니고 있는 아젠다나 현안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음. 기존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강남구, 구미시 등의 현안을 다루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포스트 뉴 노멀시대에 대비하는 도시, 협치, 시민참여, 환경, 주민자치, 공공디자인 등과 더불어 도시정부의 현안과제(세종시: 주민자치, 강남구: 영동대로 개발 등)를 다루는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음.
- 특히 학회의 회원들이 도시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교수진이나 전문가들인 만큼 고양시정의 지향점이나 문제점 등을 전문성 높게 다룸으로서 고양시의 이상적인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고양 도시포럼의 경우 총괄부서가 없는 만큼 도시 관련 학회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학회가 주도적으로 포럼을 주관하게 될 경우 자칫 고양시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지 못하는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3-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포럼 사례



출처: 한국도시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ruma.org>) 접속일 2019.12.24.

4. 소결

- 앞서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포럼의 흥행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요소로 도시의 방향성과의 일치 및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도시의 특색이나 고유성(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면서도 찾은 그 내용들이 도시정부의 지향점이나 도시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님.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포럼을 넘어 고양시의 방향성이나 주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고양시 또한 고양시의 현안 등을 바탕으로 포럼을 이끌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고양시만의 독창적이면서도 시정의 방향성이나 시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는 시급성의 문제보다도 신중함에 방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른 학회나 전문 단체 등과의 공동개최나 후원 등의 방법 또한 고려해 볼 만하나 공동개최 단체 혹은 후원사의 영향으로 인해 고양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

제2절 고양 도시포럼 개선 방안

- 고양도시포럼 지속가능성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고양 도시포럼을 진행하는 구성원들과의 인터뷰 및 다른 지역의 포럼 사례를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은 포럼의 주제 및 방향성 정립, 조직의 구성 및 개편, 운영 방안 그리고 시민 참여 방안 확대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포럼의 주제 및 방향성 정립

- 고양포럼의 경우 2019년 도시포럼을 “미래를 묻다” 라는 주제로 도시재생&환경이라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음.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에거나 직면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의 독창성 있는 주제로 보기 어려움. 물론 트렌드인 만큼 틀이볼 필요성은 있으나 이 경우 트렌드를 따라가기만 할 뿐 도시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거나 고양시정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고양시의 미래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의 키워드나 소재 등을 발굴하고 주제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한 접근방안으로 우선 시민의 참여를 들 수 있음. 시민은 고양시에서 거주하며 도시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이들로 가장 현장감 있는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주체임. 이를 위해 각종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소통창구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여러 목소리가 고양시로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이 발족하였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이를 위해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도록 T/F의 구성까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직의 구성 및 개편

- 부서 간 협업, 분과별 관리를 위한 가온머리 역할 부재로 고양도시포럼 진행 준비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에 가온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배정이 필요함.
 - 국외 연사 섭외 및 사전 자료 제공 어려움
 - 분과별 자료 취합, 관리에 어려움
 - 사전 준비사항 공유 및 부서 간 협조체계 미흡
 - 기초연설 사전 준비과정 혼선 발생
 - 국내초청자 관리 등 한계점 존재
 - 고양도시포럼 운영비 배분에 대한 문제 등

- 고양도시포럼 준비를 위해 당초 TF팀 4명(팀장 1명, 담당자 3명)을 구성하였음.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담당자 1명만 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여러 부서에서 협조요청 등 협업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 행정업무 등이 늘어나 추진단에 과도한 업무부하가 발생함. ‘기획 → 준비 → 운영 →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간이 약 1년으로 전담부서 없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 특히, 고양도시포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양도시포럼 개최와 관련된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2019 고양도시포럼’의 주요 참여그룹 중 하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임. 이에 주민

차지위원회 및 각종 CSO¹⁾에 소속된 다수의 시민들이 도시포럼에 참석하였음. 하지만, 프로그램 상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 방안으로는 우선 행정안전부 주최의 ‘주민차지박람회’를 들 수 있음.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전국 주민자치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주민자치회를 선정하고, 별도의 공간에 모여 각 주민자치회별 추진 사업, 정책 및 주민 활동 등을 홍보함. 이후 심사위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주민자치회를 선정하여 포상함. 특히, 2019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 18회 주민차지박람회’에서는 고양시 창릉동 주민자치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이와 같은 ‘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적인 규모 외에도 지방 정부 주관의 ‘주민자치정책박람회’가 수원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등에서도 개최되고 있음.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는 현재까지 자체적인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따라서 고양도시포럼 및 자체적인 주민자치박람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본 고양도시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에게도 고양시 주민자치 홍보가 가능할 것임. 하지만, 예산, 공간 및 준비 인원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타 지자체와 같이 행정동별 별도의 부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림 3-5]와 같이 행정동별 고양도시포럼 주제와 적합한 정책 홍보 내용을 소규모 팸플렛(포스터)으로 제작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부천시의 ‘상살미 사람들’을 들 수 있음. 이는 2018년에 재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신흥동(법정동: 삼정동, 내동) 지역의 큰 문제였던 주차공간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음.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기존의 관(官) 주도의 해결방안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거주민 중심의 공동체인 “상살미 사람들”을 바탕으로 현안을 해결하고자 접근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음.
- 이는 포럼의 방향성이나 주제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 관(官) 주도의 모델이 아닌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룰 때 참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¹⁾ Civil Society Organization

보여준 것으로 향후 포럼 기획 시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으로는 고양시 내의 여러 CSO나 주민단체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나 시민인터뷰 등을 통해 고양시의 문제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도입 가능함.
- 또한 영국의 경우 패리쉬(Parish)라는 지역의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의 기원은 15세기 종교적 조직체(교회 교구)로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했었음. 이는 영국 지방의회의 기원으로 1888년 지방정부법 개정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었음. 현재는 이런 패리쉬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을 위해 지역포럼(Local area forum)을 운영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과의 협의체로서의 대표성이 인정됨.
- 지역포럼에서 논의된 문제 등을 정책 등에 반영하거나 참조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기대됨.
- 특히 이러한 사례는 현재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양시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고도화라는 측면에도 부합하며 고양 도시포럼이 고양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한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필요로 함. 또한 포럼의 기본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원활한 포럼의 진행을 위해서도 제반되어야 할 필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음.

4. 운영방안

- ‘2019 고양도시포럼’이 처음 진행되면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고양시의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예산을 바탕으로 지출이 이루어짐. 이러한 점으로 인해 행사 준비 시 각 부서 간 협의를 필요하므로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사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홍보 및 프로그램 등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하였음. 이는 포럼 참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포럼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연사 등의 초청 등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고양도시포럼 준비에 충분한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임.

- 2개 분과(도시재생, 기후·환경)의 3가지 세부 주제(도시재생, 기후변화, 환경보전)에 대해 2일(로컬포럼 1일, 정책포럼 1일)간 운영함에 따라 시간 관리의 많은 문제가 발생함. 특히, 국외 전문가의 경우, 1인당 약 20분 정도의 발표 시간과 그보다 짧은 토론시간밖에 배정하지 못하여,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거나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음. 따라서 추후 고양 도시포럼에서는 참여하는 발표자나 토론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첫 포럼인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단점에 대한 피드백은 고양시로서는 뼈아픈 질책일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추후 지속될 포럼에서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하므로 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 4 장
결론

결론

-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미래상과 이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해 고양 도시포럼을 개최하였음. 이는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양시의 첫 포럼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은 환경분과의 로컬 포럼을 담당하여 준비하였음. 이의 구성은 하기된 내용과 같음.
 - 장항습지, 일산역 및 일산동구청 일대 탐방을 통한 포럼 참여 전문가들의 고양시 현황 파악
 - 고양시의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친환경적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장항습지의 관리, 도심 생태환경 주축, 친환경 교통체계의 수립 방안, 친환경적인 구도심 개발방안, 건축폐기물관리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본 보고서에서 고양 도시포럼의 개선방안을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음.
 - 고양 도시 포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명확하고 독창성 있는 주제의 선정 및 소재의 발굴이 필요
 - 포럼을 전담할 조직의 구성이 필요: 부서 혹은 사무국으로서의 기능 수행
 -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하며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을 정비
 -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방안 강구 및 참여한 시민의 의견 수렴 필요

참고문헌

- 홍형득(2015), “패리쉬 없는 지역엔 지역포럼 운영”. 『월간 주민자치』, 46, pp.113-114.
- 고양도시관리공사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aB1aS5gkddU_J47Fm2VG2Q) 접속일 2019.11.12.
- 눈높이 함께 사는 이야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mera111/110113186695>) 접속일: 2019.12.23.
- 미소광고 블로그(<https://blog.naver.com/dooleeone/221593382857>) 접속일: 2019.12.23.
- “부천시, 블록체인으로 신뢰받는 스마트시티 만든다” 파이낸셜뉴스(2019.06.12.)
<http://www.fnnews.com/news/201906121402181270> 접속일 2019.12.26.
- “‘상살미 사람들’의 도전과 희망 스토리, 스마트 마을기업” 부천프라임뉴스(2019.04.24.)
http://www.bcprimenews.com/news/news.html?news_num=1266 접속일 2019.12.26.
-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 <http://www.whrcf.org/>. 접속일 2019.12.23.
- “고양시, 도시재생과 환경을 주제로 ‘2019 고양도시포럼’ 성황리 개최”, 시사팩트(2019.10.23.) 접속일 2019.11.12.
- “수원시 장안구민과 함께한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뉴스365(2017.09.30.),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85480. 접속일 2019.12.23.
- 산경일보 인터넷 블로그 <https://blog.naver.com/jk20202/221694029980>. 접속일 2019.12.23.
- 세종icon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icon/221424004290>) 접속일 2019.12.23.
- 아름다운 세상 블로그 <https://blog.naver.com/lyjsimon/221600135490>. 접속일 2019.12.23.
- 인간도시 수원포럼 홈페이지 <http://www.suwonhumancity.org/>. 접속일 2019.12.23.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http://juminexpo.or.kr/>. 접속일 2019.12.23.
- 제주포럼 홈페이지 (<http://jejuforum.or.kr/index.php?aa=1>) 접속일 2019.12.24.

Abstract

Research on Result Report and Improvement plans of Goyang International City forum

Jiyeol Im*, Garam So*

This report was write for organize the results of the Goyang International Urban Forum hosted by Goyang City from October 22 to 23, 2019, and jointly organized by Goyang Research Institute and Goyang Urban Regeneration Center. The Goyang International Urban Forum in 2019 was held in two topics: urban regeneration and the environment, and it was a significant time by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to discuss Goyang's sustainability.

However, as Goyang city's first urban forum, it left unforeseen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contents of forum and immature operation. So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amine the aspects of organ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Goyang City in order to prepare the forum and to suggest improvements. And also finding more problems in operations and suggests improvements.

First thing is aspect of organization. In this forum, Goyang city isn't organize control tower to perform General administration. So it caused efficiency issues in recruiting participants, collecting data, and coordinating systems. and This, together with the problem that the budget for this event was not allocated, has resulted in unnecessary waste of administrative.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Second problem is about participation of citizen. In most forums, citizen participation is usually limited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So attendance rate is lowered if the forum theme or composition is not liked by the citizens. In particular, Goyang city prepares for Sub-metropolitan city, the advancement of resident's autonom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way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and composition of the forum.

Finally, the operational plan is pointed out. Since the budget for operation was not set separately, but operated by the budget of each department and subsidiary of Goyang City, excessive administrative work occurred due to the absence of the control tower mentioned above, resulting in a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This should be enhanced if Goyang wants to operate a sustainable forum.

In order for Goyang city to remain a major city of unified Korea beyond the sub-metropolitan city,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knowledge and increase the city's competitiveness and realize future value. In this respect, the city forum is a place for knowledge exchange, a place to present future values and a globally developed system. So it should be taken as the concept of investment that can see the far future, not the shortsighted view from Goyang city.